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제목 Theme: 부활과 생명 Resurrection and Life

본문 Scriptures: 요한복음 St John 11:17-27 절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So when Jesus came, He found that he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ur days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Now Bethany was near Jerusalem, about two miles off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and many of the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nsole them concerning their brother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Martha therefore, when she heard that Jesus was coming, wen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the house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Martha then said to Jesus,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Even now I know that whatever You ask of God, God will give You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Jesus said 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Martha said to Him, "I know that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on the last day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She said to Him, "Yes, Lord; I have believed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even He who comes into the world.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에 약속한대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긍휼이 있었습니다 Our Lord Jesus had compassion for orphans and widows, just as promised in the Bible.

고아들 중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Among the orphans were Mary and Martha, who lived in Bethany, and her brother Lazarus.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 고아들 즉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남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5 절) Our Jesus loved the orphans, namely Mary and Martha and her younger brother Lazarus (Verse 5).

고아 중에 큰 딸로 보이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즈음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일이 있어 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고 전하도록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2 절) Mary, who appears to be the eldest daughter among the orphans, anointed the Lord with perfume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towards the end of His ministry, and this served to remind the disciples of and tell them about His faith (Verse 2).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남동생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급하니 예수님을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3 절) While Jesus was preaching the gospel, Mary and Martha asked the people to call Jesus because their younger brother Lazarus was seriously ill (Verse 3).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4 절) At that time, our Lord Jesus knew that the work was to reveal the glory of God the Father (Verse 4).

그 소식을 듣고도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병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Even after hearing that news, and hearing that the illness was critical, our Lord Jesus instead stayed where He was for two more days and continued His ministry.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가(7 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깨우려 간다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했습니다(11 절) Our Lord Jesus went back into the land of Judea (verse 7), and when He learned that Lazarus was dead, He headed to Bethany where Lazarus was, saying He would go to wake him up (verse 11).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었을 때(17 절) 가까이 가니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위로하기 위하여 왔고(18-19 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도 마리아는 큰 실망 가운데 집에 있었습니다(20 절) When Jesus approached the tomb where Lazarus had been dead for four days (verse 17), many Jews had come to comfort him over his death (verses 18-19). Although Martha came out to meet Jesus, Mary remained at home in great disappointment (verse 20).

마리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잃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Maria had accepted reality, lost hope, and was in the midst of despair and sorrow.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내 남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21 절)라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22 절)라고 한 가닥의 희망을 말했습니다 Martha, with a resentful heart toward Jesus, said, “If you had come a little earlier,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verse 21), but then expressed a glimmer of hope, saying, “Even now, I believe that whatever you ask of God, He will do it” (verse 22).

현실은 절망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She has confession that although reality is despair, there is hope in our Jesus.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She believed that even impossible events were possible for our Jesus.

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23 절)고 했습니다 At those words, our Lord Jesus said to Martha, “Your brother Lazarus will rise again” (verse 23).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성경적인 내용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24 절)라고 고백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words of our Lord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Jesus, Martha confessed in a biblical manner, "I know that at the resurrection on the last day my brother Lazarus will also rise again" (verse 24).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Martha confessed her faith based on the Bible.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심판과 부활의 본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However, Martha, who had faith, could not conceive that our Lord Jesus is one with God the Father, who is the substance of judgment and resurrection.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25-26 절)라고 그녀의 믿음을 다시 깨우셨습니다 Then our Lord Jesus reawakened her faith, saying,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verses 25-26).

절대 불가능한 부활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It teaches us that the absolutely impossible event of resurrection is possible anytime and anywhere, wherever our God—the Triune God—is present.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 가능하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He spoke of the firm belief that our God,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rules the universe, makes everything possibl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그때 마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27 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At that time, Martha confessed with faith, just as Peter did, that since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God's power, nothing is impossible for Jesus, the Son of God, by saying,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is coming into the world" (verse 27).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 njklchurch@gmail.com
201-852-3600

이 고백이 죽음에서 부활을 가능하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This confession is a great confession of faith that makes resurrection from death possible.

이 믿음으로 인하여 마르다는 죽은 동생 나사로의 부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Because of this faith, Martha saw the resurrection of her dead brother Lazarus.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Dear Saints of faith!

우리의 신앙도 마르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Our faith, too, must become Martha's faith.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Through today's passage, there is something our Lord Jesus wants to convey to us.

먼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불가능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17 절) First, there are impossible events in our life of faith (Verse 17).

둘째,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21 절)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impossible, one must meet Jesus (verse 21).

셋째, 부활과 생명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7 절) Third, in order to experience miracles such as resurrection and life, one must have great faith (Verse 27).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I pray in the name of Jesus that you become a saint who fulfills the will of God the Father in faith and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grace, love, and blessings of our Lord. Amen.